

 질병관리청		보 도 참 고 자 료	
배 포 일	2021. 9. 13. / (총 10매)	담당부서	기획재정담당관
과 장	박 찬 수	전 화	043-719-7010
담 당 자	신 규 호		043-719-7221

질병관리청 개청 1주년, 방역대응에 함께 해주신 국민께 감사

- 과학적 근거 기반의 국가 공중보건위기 대응 및 보건 의료 연구개발 전문행정기관으로서 국민들과 소통하며, 끊임없는 혁신을 통해 신뢰받는 기관이 되겠습니다. -

◆ 코로나19 방역 총력 대응을 통한 국민의 생명 보호

- 진단검사 역량 인프라를 대폭 확대하여 확진자를 조기 발견하고, 변이바이러스 위협에 대응하여 분석 역량 강화
- ICT 기반 신속·정확한 역학조사를 통해 단시간 내 접촉자를 추적하는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

◆ 코로나19 위험 최소화를 위한 전 국민 무료 예방접종 시행

- 전 국민의 64.6%인 약 3,315만 명(9.13, 0시) 1차 접종 완료, 추석 前 국민의 70% 이상 1차 접종 달성 가시화

◆ 코로나19 등 백신·치료제 개발

- 국립감염병연구소를 설치(20.9월)하여 코로나19 등 백신·치료제 개발을 지원하고 변이바이러스에 적극 대응

◆ 인플루엔자 등 질병 예방·관리로 국민의 건강 보호

- 인플루엔자 등 국가예방접종을 확대하고, 결핵, 의료감염 및 항생제 내성 관리 등 감염병 상시 예방 체계도 강화
- 국가·지역 단위의 건강조사·통계를 생산하고, 고혈압·당뇨·희귀질환 등 비감염성 질환 예방·관리도 지속적으로 추진

◆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

- 전자예방접종증명서 발급, SNS를 통한 잔여백신 예약시스템 도입,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전자문진표 도입 등 편의성 보장 노력 지속

- 질병관리청(이하 '질병청')이 2020년 9월 12일에 전문성을 강화한 독립된 중앙행정기관으로 승격되고 1년이 되었으며, 질병청은 국민 건강과 사회 안전을 위해 코로나19 방역대응 및 질병 예방·관리 업무에 매진해왔다.

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대응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.

- 코로나19 신속 진단을 위해 검사기관을 지속 확대('20.2월 65개 → '21.8월 223개)하고 취합검사법을 도입하여 진단검사 가능 건수를 1일 50만 건까지 확대('20.2월 2만/일 → '21.8월 50만/일)하는 등 검사 역량을 강화하였다.

- '21년 이후 변이바이러스의 유입이 증가함에 따라 변이분석기법을 개발* 하여 분석 소요시간을 단축하고, 분석기관 확충('20.8월 2개 → '21.8월 27개) 등의 노력을 통해 변이 분석 역량**도 대폭 확대하였다.

* ('20년 8월) 질병청 전장유전체분석(소요기간 5~7일) → ('21년 2월) 질병청 및 질병대응센터 타겟유전자 분석(3~4일) → ('21년 7월) 시·도 보완연 변이PCR 분석(1일)

** 현재 WHO, ECDC의 유전체분석 권고기준(약 5~10%)을 상회하여 분석 중 ('21. 2월) 9.8% → ('21. 4월) 16.9% → ('21. 8월) 22.3%

- 코로나 19 확진자의 감염원과 접촉자를 신속하게 확인하기 위해 통신·카드·QR 정보 등의 수집·분석을 자동화하는 등 역학조사지원시스템*을 고도화하고, 선진 역학조사 기법을** 도입하여 역학조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였다.

* 감염병 예방법 제76조의2제2항에 따른 코로나19 감염병환자 등의 동선정보,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제1호에 따른 신용카드 등의 사용 정보, 전자출입명부 등에 대한 정보 요청 및 제출을 처리하는 정보처리시스템

** 공기역학분석, 사회관계망 분석 등 새로운 기법을 통한 감염원 및 감염경로 파악

- 또한, 코로나19 방역 정책의 과학적 근거 확보를 위해 민간 연구진과 협업하여 코로나19 발생 예측, 백신 접종 효과, 사회적 거리두기 효과 등에 대한 수리모형을 개발하고 매주 이를 분석하여 방역정책 수립에 활용하고 있다.

○ 질병청이 개청하면서 전국을 5개 권역으로 나누고 권역별로 권역질병대응센터를 설치하였다. 각 권역질병대응센터를 거점으로 중앙역학조사관과 지자체 역학조사반과 연계하는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선제적 공동 대응을 추진하고 있다.

- 특히, 3차 유행기('20.11월~'21.1월) 수도권 질병대응센터를 중심으로 수도권 특별상황실을 설치하여 지자체와 협력하며 수도권 지역 대규모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였다.

- 검사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임시 선별검사소를 설치('20.12.14~)*하도록 하고,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군인·경찰 인력을 동원(810명)한 대규모 역학조사를 실시, 3차 유행에 적극 대처하였다.

* 초기 153개소('20.12., 수도권) → 97개소('21.6., 전국) → 212개소 운영 중('21.8., 전국)
3차 유행 기간('20.12~'21.1) 중 122만 건(일평균 3만 건) 검사, 3,678명 확진자 발견 → 동 기간 확진자의 12.4%가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를 통해 확인

② 코로나19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 국민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.

○ 현재까지 전 국민의 64.6%인 약 3,315만 명(9.13, 0시)이 1차 접종을 완료하여, 추석 前 국민의 70% 이상 1차 접종 달성이 가시화된 상황이며,

- 신속한 집단면역 확보를 위해 10월 말까지 국민의 70% 이상 접종 목표를 달성해 나갈 계획이다.
- 올해 초 예방접종의 신속하고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질병청 내에 “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”을 설치(‘21.1.8.)하였다.
- 추진단은 접종 시행계획 수립, 백신도입 및 계약, 지자체 및 관계부처와 협력을 통한 접종 시행, 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까지 온 힘을 다해 예방접종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.
- 전 국민 접종가능 물량의 2배에 해당하는 총 1억 9,490만 회분의 백신을 도입하기로 하여 6,421만 회분 도입 완료(9.13 기준), 잔여분도 순차적으로 도입 중에 있으며,
- 동 백신들은 국내 배송절차에 따라 전국 접종현장(1.4만개)으로 콜드체인을 유지하며, 안전하고 신속하게 배송되어 실제 접종에 활용되고 있다.
- 또한, 변이바이러스 확산·공급 불확실성 증가 등에 대비하여 내년도 9천만 회분의 백신 구매 예산*을 '22년 예산안에 반영하였다.
- 국민들이 접종기관, 날짜·시간 등을 선택할 수 있도록 사전예약 시스템을 구축·운영(‘21.4월~)하고 있으며,
- 민간 지도 플랫폼(네이버, 카카오)을 통한 잔여백신 예약시스템을 구축(‘21.5월)하여 백신 폐기량을 줄이는 동시에 활용도를 높였다.

* 잔여백신예약시스템을 통한 잔여백신 접종자 약 162만 명(9.13.)

○ 국민들이 거주지 및 직장 등 생활현장에서 시간과 장소의 구애 없이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1.6만개의 위탁의료기관 및 282개의 접종센터를 운영 중이다.

- 아울러, 사각지대 접종을 위해 국방부와 협업하여 해군 함정을 활용한 도서 벽지 주민 대상 찾아가는 예방접종 서비스를 제공*하였다. 집단생활로 감염에 취약한 교정시설 입소자, 발달장애인 및 직업재활시설 이용자 등에 대해서도 접종을 진행하고 있다.

* 6.14~6.30 중 전남 도서지역(25개) 30세이상 주민 600명 대상 접종

○ 예방접종 후 안전관리를 위해 이상반응 신고, 조사 및 피해보상 체계를 강화하는 등 이상반응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 해소에 적극 노력중이다.

- 예방접종 피해보상에 대해서 중증은 물론 경증까지 보장하고, 인과성이 불충분한 중증·경증포함 특별관심 이상반응 환자에 대해서는 1천만 원까지 의료비를 지원 중이며, 긴급복지 등 기존 복지사업과의 연계를 통한 지원체계도 수립하였다.

- 또한, 접종대상자가 이상반응과 관련한 정보에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1339 콜센터 이상반응전담팀을 설치·운영 중이다.

③ 국립감염병연구소를 설치(20.9월)하여 코로나19 등 백신·치료제 개발을 지원하고 변이바이러스에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.

○ mRNA 백신 기술력 확보를 위해 한-미 협력을 지속하고 있으며, 국내 기업 대상으로 mRNA 백신 제작 단계별 필요한 R&D 기술을 발굴하여 부처 협력 및 산·학·연 공동연구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.

- * 범정부 코로나19치료제·백신 실무추진위 산하 'mRNA 백신 전문위원회'를 신설('21.3), 기업 학계 대상 기술수요 조사를 통해 정부 지원 기술분야 도출('21.5)
- * 韓 국립보건연구원-美 국립알레르기감염병연구소 간 백신·치료제 개발 협력 의향서신교환('21.5.18일), 모더나社와 mRNA 백신 개발 MOU 체결('21.5.22일)

○ **코로나19 백신 국내개발을 위해 임상시험 검체 효능분석 등을 진행하고 있다.**

- * (SK바이오사이언스) 합성항원백신의 임상 3상 검체 중화항체 분석
- * (진원생명과학) DNA백신의 임상 1/2상 검체 중화항체 분석

○ **예방접종의 과학적 근거 기반 마련을 위해 국민 면역항체 보유율 조사 (전국 단위 35,651명, 유행지역 11,353명 조사 완료), 백신 면역원성 조사*를 진행하고 있으며 백신 플랫폼 간 교차접종 부스터샷 연구**를 추진 중에 있다.**

- * 백신 4종(아스트라제네카, 화이자, 모더나, 안센)의 항체생성율, 항체 지속능 등 추구조사
- ** 백신 3종(화이자, 모더나, 노바백스[허기예정])에 대한 부스터샷 면역원성 분석 등 추구조사

○ **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백신, 치료제, 진단 기술 개발 및 융합연구 지원을 위해 코로나19 바이러스(총 21주)를 기탁 받아 분양*하고 있다.**

- * 주요 변이주(VOC) : 알파형(143건), 베타형(139건), 감마형(89건), 델타형(90건)
- * 기타 변이주(VOI) : 입실론형(147건), 제타형(75건), 에타형(67건), 이오타형(70건), 카파형(94건) ('21.9. 6일 현재)

○ **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을 위해 항체치료제 및 민간개발 후보물질에 대한 효능분석을 진행하고 있다.**

- 변이바이러스 대응 및 치료제 개발 역량 강화를 위한 광범위한 효능의 항체치료제 추가 개발 지원과 항바이러스 실험실(3개소) 운영, 치료효능 평가를 위한 임상연구도 지속하고 있다.

④ 인플루엔자 등 주요 상시 감염병, 만성질환 등 각종 질병 예방관리로 국민들의 건강한 삶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.

○ 코로나19-인플루엔자 동시유행 예방을 위해, 인플루엔자 무료접종 대상자를 확대('19 1,374만 명 → '20 1,979만 명)하고, 유통 절차 (유통사업계획서 제출 의무화) 개선 등 국가필수예방 백신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였다.

- 코로나19와 증상이 유사한 인플루엔자 환자 발생 방지를 위해 한시적으로 무료접종 대상을 확대(14-18세, 62-64세 연령층 포함)하였다.

- 올해는 다수의 백신 조달업체(5개 제조사)와 유통 전문 업체(4개사)를 통해 백신 공급 및 유통을 실시하는 한편,

- 백신의 체계적 보관 및 수송 관리를 위해 사전 유통계획과 유사 시 신속대응 방안을 마련하고, 물류창고 및 수송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사전 교육을 의무화하였다.

- 특히, 조달업체 및 유통업체 대상 현장점검*을 수시로 실시하여 안전한 백신 운송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.

* 국가예방접종사업 기간('21.9~'22.4월) 중 조달업체(5개사) 및 유통 전문 위탁업체(4개사) 대상 안전한 백신 수송을 위한 현장점검 수시 실시 중

○ 결핵 감시체계 운영 이래 최초로 신규 결핵환자가 1만 명대로 진입('18년 26,433명 → '19년 23,921명 → '20년 19,933명)하는 등 결핵예방 및 전파 차단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.

- '잠복결핵감염' 산정특례 적용('21.7~)으로 본인부담금 없이 치료가 가능하도록 하였다.

- 의료관련 감염 및 항생제 내성을 예방하고자, 의료감염 감시대상 및 범위를 확대*하고, 한국형 항생제 사용 관리를 위한 교육 자료를 개발하여 보급**하고 있다.

* 의료관련감염 감시 확대: ('20) 4개 모듈, 387개 기관 → ('21) 5개 모듈(중환자실, 수술부위, 신생아중환자실, 손위생&중심정맥관, 영양병원), 420개 기관

의료관련감염병 표본감시기관 확대: ('20) 289개 기관 → ('21) 297개 기관

** 항생제 사용관리 프로그램 교육 동영상 자료 제작 및 배포(일반인용 5편, 의료인 기본 8편, 의료인 심화 8편)

- 주요 만성질환 예방·관리를 위한 과학적 근거 마련을 강화하고자 국가·지역 단위의 건강조사·통계를 지속적으로 생산*하고, 심뇌혈관질환 국가통계생산체계를 구축('21~)해 나가고 있다.

* 국가건강조사의 정책·학술적 활용도 강화를 위해 '21.4월부터 맞춤형 통계집 '국민건강통계플러스(주제별 요약통계, 이슈리포트 등)'발간 추진

- 지역사회 중심의 고혈압·당뇨병*, 아토피·천식** 예방관리 뿐만 아니라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 대상질환 확대('19.10월 1,014개 → '20.12월 1,086개, +72개) 등 비감염성 질환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추진하고 있다.

* (보건소 고혈압·당뇨병 등록관리환자) ('20) 34만명 → ('21) 36만명(~'21.8월)

** (광역 아토피·천식 교육정보센터) ('20) 7개 지역 → ('21) 9개 지역

- 비감염성 건강위해요인에 대한 선제적이고 능동적인 대응을 위해 건강위해대응관을 신설('20.9월)하여 흡연폐해 연구, 건강영향평가 모형 개발, 중독 실태조사 등 건강위해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와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,

- 손상조사·감시사업을 기반으로 손상의 사회경제적 부담과 예방 가능성을 홍보하고*, 관련 지침을 개발·보급**하고 있다.

* 국가손상정보포털 운영('20.9월, 손상·심장정지 관련 통계, 예방관리지침 등 안내)

** 2020년 한국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('20.12월), 교통약자 안전벨트 착용지침('21.5월)

- 기후변화로 인한 국민 보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, 제 1차 기후보건영향평가*를 실시하여('21년) 공표할 예정('22년 1분기)이며, 이를 기초로 보건의료취약집단(노인·기저질환자 등)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.

* 기후변화가 영향을 미치는 질병의 종류·특징·추이 등을 평가하여 보건의료취약계층(노인·장애인·임산부·어린이 등)에 미치는 영향 평가

⑤ 정밀의료시대를 여는 미래 보건의료 연구를 통해 초고령화 시대를 대비하고 있습니다.

○ 첨단재생의료 안전관리기관으로서 임상연구의 안전관리체계 구축·운영(임상연구 모니터링, 이상반응 접수 등)하고, 줄기세포기반 임상시험용 치료제 생산 등 줄기세포·재생의료 연구 지원도 지속하고 있다.

○ 유전체 및 빅데이터에 기반한 질병의 조기 진단, 맞춤 치료 등을 위해 국가 차원의 100만 명 규모 바이오 빅데이터를 구축하고 있다.

- 나아가, 심뇌혈관질환, 치매, 당뇨, 천식, COPD, 신장질환 등 만성질환에 대한 예방·관리 및 맞춤 치료 연구도 확대해 나가고 있다.

⑥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.

○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진단검사 시 종이 문진표 작성에 따른 번거로움을 없애고 검사 대기시간을 줄이기 위해 QR 코드를 활용한 전자문진표를 도입하였다.

- 종이 예방접종증명서 발급과 함께, 블록체인 기반의 전자 예방접종증명서 발급(COOV 앱)을 개시('21.4월)하였다.
 - 앱을 통해 전자 증명서를 QR코드로 제시하여 진위여부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,
 - 다중이용시설 등 출입 시 예방접종 여부를 동시에 확인할 수 있도록 전자출입명부(KI-PASS)와도 연계('21.7월)하였다.
-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감염병 환자의 이동 경로 등 공개 시 감염병 예방과 관계없는 성명, 읍·면·동 단위 이하 거주지 주소 등 개인정보는 제외하도록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였다.
-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은 “중앙행정기관으로 변화되면서 예산, 법령, 인사 등 독립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코로나19 방역대응에 노력해왔으며,
 - 코로나19 유행을 적극 통제하고 차질 없이 예방접종을 추진해올 수 있었던 것은 모두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, 관계부처·지자체의 협력, 보건의료계 협조 덕분에 질병관리청 모든 직원의 마음을 담아 진심으로 감사드린다.”고 밝혔다.
 - 또한 “질병관리청은 『건강한 국민, 안전한 사회』를 위해 신설된 기관인 만큼 앞으로도 끊임없는 혁신을 통해 신종 감염병, 만성·희귀질환, 기후변화 등 건강위해 예방·관리에 최선을 다해 『국민 건강 지킴이』로서 역할을 충실히 해나가겠다”고 밝혔다.